

전통마을에서 찾은 ‘지속가능한 사회’의 열쇠

《한국의 전통마을을 가다》(전 2권) 낸 건축학자 한필원



대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한필원(43·한남대 건축학부) 교수와 아시아건축연구실(ATA : Asian Tradition in Architecture. <http://ata.hannam.ac.kr>)이 함께 작업한 《한국의 전통마을을 가다》는 엄밀히 말해 건축학적인 입장에서 전통마을을 연구한 학술서라고 할 수 있다. 전통마을에 찾아가 일일이 마을의 집과 도로 등 구조를 실측하고 도면으로 표현하는 것이 주된 작업이었다. 한 교수는 이를 토대로 각 마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피고 이러한 특성이 현대건축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고민했다. 가령 충청남도 송악면 외암리 1구 오양골 외암마을에서는 환경적인 요소의 부족함을 극복하는 지혜를 얻고,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1리 왕곡마을에서는 지

속 가능한 거주 공간의 해법을 찾아낸다.
“전통마을에 대한 연구는 대학원 시절 본인의 석사논문 주제였습니다. 호기심에서였는데 막상 연구를 진행하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전통마을에 담긴 철학에는 서양의 건축이론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양의 건축이론이 찾고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과연 우리 건축이 현대에 주는 교훈은 뭔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교수는 1985년에서 1991년까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이광노 교수가 지도한 무애건축연구실 일원으로 조사에 참여했고, 이후에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그가 지도교수로 있는 ATA 소속 연구생들과 함께 전국의 전통마을을 찾아 발품을 팔았

다. 결과적으로 집필기간은 2년이지만 20년의 연구기간이 걸린 셈이다.
한 교수가 보기에 현대 한국건축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획일성이다. 도시라는 것은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개성, 즉 고유한 분위기가 느껴져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무분별하게 서양의 건축이론을 도입함으로써 획일적이고 시간적 깊이를 찾아볼 수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다. 현대건축이 전쟁 이상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주거공간과 가치관을 파괴했다는 게 한 교수의 생각이다.
“250년 전에 나온 이중환의 《택리지》는 ‘지속가능성’이라는 현대 문명의 화두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마을은 다양성, 인

간적 삶의 척도, 환경친화성 등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작업은 이런 숨은 가치를 드러내 학술적으로 정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이론이라고 해도 건축주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죽은 이론이나 다름없다. 결국 비용은 건축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주가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일반인과의 소통이다.

한 교수는 이를 위해 집필과정에서 답사기라는 방법을 도입했다. 사실을 기록하는 것에만 급급하지 않고 조사를 위해 마을을 찾아가는 시점부터 조사를 마치고 마을을 빠져나오기까지 들어가는 문과 나가는 문을 열어둠으로써 독자들이 함께 마을의 요모조모를 살펴볼 수 있게 했다. 물론 그렇다고 이론의 깊이를 낮춘 것은 아니다. 12개 마을을 672페이지 분량에 소개하고 있으니 한 마을당 평균 56페이지 가까이 서술하고 있는 셈이다. 도면도 딱딱하지 않게 음영을 주었고 최대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진도 풍부하게 실었다. 출판사의 요구였지만 찾아가는 길 인근의 가볼 만한 문화재를 팁으로 소개해 한 권의 여행서로서도 손색이 없도록 했다.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서 ‘아는 만큼 본다’ 고 했는데 저희는 좀 다릅니다. 역으로 알기 위해 본다는 표

현이 맞습니다. 한 번에 그 마을을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주 방문한다 해도 그곳에 사는 것보다는 못하겠죠. 또한 건축, 특히 주거공간 연구는 단순히 건축학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회학, 민속학, 역사학, 문화재학 등 학제간 연구가 중요합니다. 그만큼 흥미로울 뿐 아니라 앞으로 해나가야 할 것도 많습니다.”

경상북도 구성면의 원토마을은 한 교수가 가장 애정을 쏟는 마을이다. 전통마을은 실용성과 같은 보편적 특성에서 저마다 조금씩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에 비해 원토마을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서 친환경이라는 측면에서 현대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보편성은 한 교수의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원토마을은 유명한 인물을 배출한 마을도, 대단한 한옥들로 구성된 마을도 아닌 평범한 농촌마을입니다. 그러다보니 마을 공간을 보존하여 남에게 내보이려는 어떠한 욕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실의 필요와 삶의 논리에 따라 충실히 공간을 형성하고 변경해 온, 전통의 왜곡도 단절도 없는, 건강한 마을일뿐이죠. 끊임없이 변모하면서도 본래 가지고 있던 환경 친화성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그곳에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건축과 중국건축이 세계 건축계

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건축은 아직까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나마 한 교수는 작년 7월까지 1년간 뉴욕 주립대학교의 초청으로 아시아의 전통주거공간을 강의할 수 있었다.

“얼마 전 <뉴스위크>지에서 일본 건축가와 디자이너를 특집으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일본과 중국의 건축은 세계 건축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다른 세상에 알려진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한번 한국건축의 참맛을 알면 그들도 생각을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한교수의 노력으로 최근에는 직접 수업료를 내고 답사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외국인들도 있다. 그가 20년 동안 이 일에 매달린 이유도 한국건축이 세계건축에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다. 출판사측으로부터 영어판과 일어판 출판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교수는 최근 공주, 홍성, 강경을 중심으로 한 ‘근대도시’를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전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전통 건축이 왜 현대에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되었는가’라는 의문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근대기에 한국건축이 어떠한 자생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동시에 당시 유입된 서구의 건축과 어떻게 융합, 발전하였는가를 중심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한필원**

취재 | 신동섭 기자 · 사진 | 박신우 기자



● 《한국의 전통마을을 가다》(전 2권) 한필원 지음 | 북로드 | 1권 356쪽·2권 316쪽 | 각권 값 15,000원